

# '86년 10대 뉴스

本社 선정

○... 개교 80周年을 맞았던 지난 86년은 「동국발전」...○  
○...의 기치를 내걸고 東國人 모두가 노력했던 한...○  
○...해였다. 또한 한해를 마감하며 노년의 성과...○  
○...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각해야 했던 한해...○  
○...이기도 했다. 다양한 80주년 기념사업들이 활발...○  
○...히 이루어졌는가 하면, 2번씩이나 강의할 틀을...○  
○...없이 앉았던 기억들... 본紙에서는 크고 작...○  
○...은 여러사건들 중에서 10대뉴스를 선정해 당시...○  
○...를 생생히 더듬고 반성해, 앞으로의 발전적 계...○  
○...기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註>...○

### ① 80周年 기념관 기공

개교 80주년을 맞아 동국대학교는 8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기념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며, 1987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기념관은 10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로, 학생회관, 도서관, 강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념관의 건립은 동국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② 아시아계인물 추모

동국대학교는 1986년 10월 10일 아시아계인물 추모 행사를 개최하였다. 추모 행사는 아시아계인물들의 공헌을 기리고,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추모하는 취지였다. 추모 행사는 아시아계인물들의 공헌을 기리고,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추모하는 취지였다.

### ③ 학사일정 거부

동국대학교는 1986년 10월 10일 학사일정 거부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사일정 거부 행사는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학사일정 거부 행사는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 ④ 전·후기 분할전행

동국대학교는 1986년 10월 10일 전·후기 분할전행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후기 분할전행 행사는 전·후기 분할전행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전·후기 분할전행 행사는 전·후기 분할전행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 ⑤ 제헌의회 스승추진

동국대학교는 1986년 10월 10일 제헌의회 스승추진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헌의회 스승추진 행사는 제헌의회 스승추진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제헌의회 스승추진 행사는 제헌의회 스승추진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 ⑥ 韓醫大 수업거부농성

동국대학교는 1986년 10월 10일 韓醫大 수업거부농성 행사를 개최하였다. 韓醫大 수업거부농성 행사는 韓醫大 수업거부농성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韓醫大 수업거부농성 행사는 韓醫大 수업거부농성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 ⑦ 錫杖寺하네

동국대학교는 1986년 10월 10일 錫杖寺하네 행사를 개최하였다. 錫杖寺하네 행사는 錫杖寺하네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錫杖寺하네 행사는 錫杖寺하네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 ⑧ 모산문화재단의원례

동국대학교는 1986년 10월 10일 모산문화재단의원례 행사를 개최하였다. 모산문화재단의원례 행사는 모산문화재단의원례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모산문화재단의원례 행사는 모산문화재단의원례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 ⑨ 동아의원례

동국대학교는 1986년 10월 10일 동아의원례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아의원례 행사는 동아의원례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동아의원례 행사는 동아의원례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 ⑩ 동학의원례


동국대학교는 1986년 10월 10일 동학의원례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학의원례 행사는 동학의원례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동학의원례 행사는 동학의원례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였다.

## 축 謹賀新年 축

###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會長 金聖涉  
대한모방工業株式會社



회장 정해수  
鮮昌産業株式會社



# 신년논단 經濟

○ 1987년은 1986년에 비해 1.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85년 1.2%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1987년 예산안은 1986년 예산안 대비 1.5%의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이는 재정 건전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986년 예산안은 1985년 예산안 대비 1.5%의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이는 재정 건전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 기금도 정부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 기금사업심의의 「基金法」 개정 시급 민간기금...국회에 자료제시도 안해

국회 예산위원회는 12일 민간기금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금이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基金法」 개정 시급을 촉구하고 있다.

예산위는 민간기금의 규모가 1985년 말 기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1984년 말 1,000억 원에 비해 20% 증가한 것이다.

예산위는 민간기금이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基金法」을 개정하여 민간기금을 정부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기금에 대한 정보가 국회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관련 기관에 자료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張源宗  
〈경상남도교수·경제학박사〉

예산위원회는 12일 민간기금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금이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基金法」 개정 시급을 촉구하고 있다.

예산위는 민간기금의 규모가 1985년 말 기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1984년 말 1,000억 원에 비해 20% 증가한 것이다.

예산위는 민간기금이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基金法」을 개정하여 민간기금을 정부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기금에 대한 정보가 국회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관련 기관에 자료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 예산처리되지 않던 기금 16조원 석유기금은 사영여부알길없어

예산위원회는 12일 민간기금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금이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基金法」 개정 시급을 촉구하고 있다.

예산위는 민간기금의 규모가 1985년 말 기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1984년 말 1,000억 원에 비해 20% 증가한 것이다.

예산위는 민간기금이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基金法」을 개정하여 민간기금을 정부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기금에 대한 정보가 국회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관련 기관에 자료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기금은 이름이 기금이지 일반예산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규예산으로서 국회의 심의, 결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행정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편성·진행되고 있다.

〈표 1〉 공무원연금86년도 여유자급유용연환 (단위: 억원)

공공 기금	예타	유기금	기타
9.355	2.960	2.800	160
2.720	1.675		

〈표 2〉 種別管理基金의 支出内訳 (單位: 百円)

86計劃	87計劃
1. 種別買入費 11,508	7,624
2. 操作費・貯蓄品費 1,290	797
3. 種別繰上元利金 9,068	8,755
4. 借入金元利金 159	555
5. 種別繰上金及其他 1,260	1,323
計	22,528

## 작년에 비해 추곡수매예산 감소로 농민 생활파탄 우려 되기도

농민들은 추곡수매예산이 작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민들의 생활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며,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추곡수매예산이 1986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곡수매가격 하락과 수확량 증가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농민들은 예산 삭감이 추곡수매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생활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며, 추곡수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학 교수 尹在天의  
끝없는 자기갱신!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

尹在天 隨筆集  
사람이 하는 일하기에 완전함을 강요하는 것도 무리이고, 실수가 전혀 없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감수시키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이 있는 일은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다. 시작만이 있을 뿐 끝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다.

가격 3,300원  
에디션서관  
서울·마포구 도화동 345 3호  
712-7398, 718-2468

3  
오늘의 질문충서

신념의 언어와  
예술의 언어

은갖 사물에 대하여 동상 무심하다가 어느날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끓어 올랐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품을 대하는 느낌과 감동이 독자 삶의 체험이 깊어짐에 따라 달라지며 명작일수록 그것이 가지는 본질과 의미가 깊어지고 다양해지며 명료해지는 듯 하다.

洪禎云 評論集  
보통사람을 위한  
문학이해의 지름길!

독서 五象社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 57, ☎ 714 5046.

李在仁  
田園수필집

우리를  
순수케하는  
것은

시보다 아름답고  
소설보다 재미있는  
동화보다 순수한 에세이

도서출판 미리내  
국판 200쪽 / 값 2500원  
제판 269-2669

최신교육학특강(上)(F)권 389회 講義記念  
教育學 李大成 博士 講義 録 판매중  
教育學特講 上·中·下·特I 발행 30만부 돌파記念!

中等教師  
校監昇進

中等教師 順位考査・校監昇進試験の中 예비 内容  
教育學特講 下 10개 科目 案内  
本 特講 카세트는 서울 YMCA 정기프로그램인 中等教師 初等教師 校監昇進 教育學 科 教育學特講(上)(F) 권을 YMCA 강당에서 700명 수강자에게 훌륭한 李大成 교수님이 직접 강의한 講義 録을 出版 發行한 特講 카세트이다.  
\* 本 特講 카세트는 市販 發行, 따라서 本公司에서 판매 中.

教育學特講(上) 카세트 10개 科目  
교육기초·교육원리·교육사·교육철학·교육과정·교육심리·정신위생·학교 및 학급경영·교육제도·국민교육헌장·새마을교육·사서 및 일반교양(부록 附 錄) 교육학 실제시행문제 및 정답 전부 수록.  
▲책대 8,000원 ▲카세트25개×3,000원(개당) -75,000원 ▲송료 2,000원

教育學特講(下) 카세트 10개 科目  
교육 및 학습지도·시정리교육·교육평가·생활지도·교육연구·학교와 지역사회·교육행정·강학론·교사론·교육연구·총합평가문제해설(부록) 해방 이후 교육학 실제시행문제 및 정답 전부 수록.  
▲책대 8,000원 ▲카세트28개×3,000원(개당) -84,000원 ▲송료 2,000원

구입방법 (특음 카세트)  
▲教材: 권작성관 판매중?  
(사무실) 서울·종로구 종로2가 YMCA 3층 312호 (우편번호) 010041-31-504316 종자출판사 (우체국지정) 110 서울특별시 우체국사서함 969 호 종자출판사 앞으로 소정의 금액을 「초액환」이나 「통신판권서」로 만들어서 등기부 우송하시거나 本 特講 카세트 冊을 발송해 드린다.

鍾閣出版社  
734-1161-739-5551  
YMCA 3층 312호

軍·행정·모집·차트·동원  
육군 참모총장 위촉서  
관인성서예 차트 학원

732-5346  
735-3771

情報處理技士  
1급특강 (1987년도 시행)

개강 1차: 12월15일(6주: 오후반)  
2차: 1월5일(6주: 오후, 야간반)

※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 수시해석(1주), 통제(1주)에 중점을 두어 각과목 1주 완성.  
※ 과년도 문제 철저 분석 강의  
※ 저지직강(학원 강사진의 교재편찬)  
情報處理技士問題詳解(4.6배판)  
기사 1급수지자 근전산법 입대우선

SPSS 처리 및 특강  
· 저렴한 가격으로 통계처리 · 사용방법특강  
주식회사 민컴 사입부: 735-0211-5

동계방학특별언어특강(12.1, 2월)  
과목: PASCAL, C, PL/1 (매월 첫 주 월요일 개강)  
실습기종: PRIME 750

정규프로그래밍과정 (새벽, 오전, 오후, 야간)  
· EDPS · COBOL · I · FORTRAN · ASSEMBLY  
· IOCS · COBOL · II · 실무실습 · BASIC  
개강: 매월 첫 주 월요일(각과목 1개월)

서울 735-0211-5 (종로2가 YMCA 후원회)  
인천 73-7383.74-8915 (동인천역 속천교교안)

원장 민경현  
Ω/서울컴퓨터학원



「이제 방관자적 자세에서 탈피할때」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 이제 방관자적 자세에서 탈피할때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 회비삭감이 學生活動 침체블러

임시휴업 조치...當局 불신가중

대학의 회비삭감은 학생들의 생활 활동을 침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 학교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 '86 記者放談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방관하는 것이 되고 있다.



다사다난... (Caption describing the photo)

# 다사다난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다사다난... (Text describing the events)

- 宗團의 財政지원 시급  
적극적인 취업대책 강구해야
- 宗團의 財政지원 시급... (Text describing the financial support of religious groups)

宗團의 財政지원 시급... (Text describing the financial support of religious groups)

宗團의 財政지원 시급... (Text describing the financial support of religious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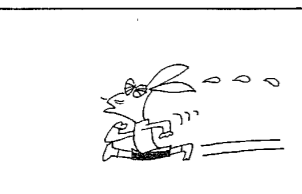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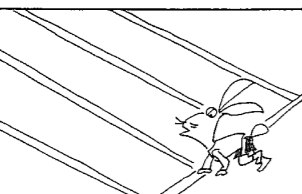
宗團의 財政지원 시급... (Text describing the financial support of religious groups)

宗團의 財政지원 시급... (Text describing the financial support of religious groups)

롯데제과  
인삼의 맛을 곱으로 즐긴다!  
인삼 엑기스를 넣어 만든 곱든 인삼맛검은 대한민국 전배칭 허가품입니다. 입안이 텁텁할 때 곱든 인삼맛검은 씹으세요. 인삼 엑기스의 씹을한 맛에 입안이 개운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 여로니

오 황 <26>



## 日本史

손 W 著

● 日本文학의 발전과 정치경제적 밀접한 관계에서 권력과 국수주의로 흐르던 日本은 연구가 제3국의 학자 손에 의해 발견되었다. 일본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중세 근세를 지나 오늘날의 일본국가의 성장·발전까지의 실상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

<역인사편·451면·5,500원>

## 祝祭와 마당극

李相日 著

이 책은 80년대에 들어와 우리의 주체적 자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전통민중예술인 90년에 한국문화의 지표로서 축제와 마당극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 「마당극의 발생」, 제2부 「축제 예술 이론」, 제3부 「통일문화 지향의 축제극」 등의 부제로 마당극에 대한 요소들의 갈래를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사·311면·2,800원>

## 카프카와 마르크스주의자

임철규 譯

프라하의 「카프카 학술회의」가 있기까지 카프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메카당스적이고 파괴적인 작가로 낙인찍혔던 그가 이 회의에 의해 어떤 각도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지를 소개하며 앞으로 그의 러시아에서의 작가적 위치는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다.

<가치권·349면·4,000원>

# 진위연극

세계 제1차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기성의 관념이나 유과 나아가서는 제도예술 자체를 부정하고 삶과 예술이 새로운 차원에서 결합하기를 지향하는 입체파나 초현실파, 다다이즘, 미래파, 누보로망, 부조리극 등의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는데, 이것을 전위(前衛) 예술 혹은 아방가르드(Avantgard)라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의 흐름이 생겨난 사회적인 배경은 당연히 당시 20세기초의 서구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철학적 지향에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철학의 부재(不在) 상황이 바로 아방가르드파의 철학적 배경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친근한 이 문명을 파괴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 문명 속에 마치 혈관속에 갇힌 화석마냥 사로잡혀 있다. 서구 세계속에서 여러분들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20세기의 서구사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외적으로도 쇠진주의에서 쇠진민주주의까지의 의미와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어 대체적으로 보수화 경향을 띠고 있고, 또한 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 속에서 각 개인은 물질문명의 기계부품과 같이되어 극도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요컨대 비전이 부재한 사회가 파괴적이면서 또한 극도로 자기포화를 감당하는 예술적 지향을 낳았던 것이다. (예컨대 기존 도덕이나 윤리 혹은 가치의 붕괴를 선언하고 문명성을 배척하면서 육체언어에 상충언어를 증시하는 전위극의 경향을 참조하자)

우선 배경이나 본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른바 전위적인 제스처를 쓰거나 혹은 전위극의 대명사라고 지칭되는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연극인 두 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오대석과 무제중) 오대석의 경우 그가 펼친 연극에 대해 전위극이라는 지칭이 주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눈에 두드러지는 「전위적인」 형식실험을 감행하면서 반리얼리즘 하에서 추상화의 길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연극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기존의 표현방법을 부정하고 신기하고 색다른 기술을 모색하면서 기성극단의 총아로 등장했지만 그의 전위성은 곧 숙된 웃음을 띤 위대한 충격적인 위선의 마스크에 불과했다는 어느 비평가의 신랄한 지적처럼, 그의 전위적인 형식실험은 결과적으로는 알파하고 애매모호한 주제적인 취약성을 호도해내는 그저 손재주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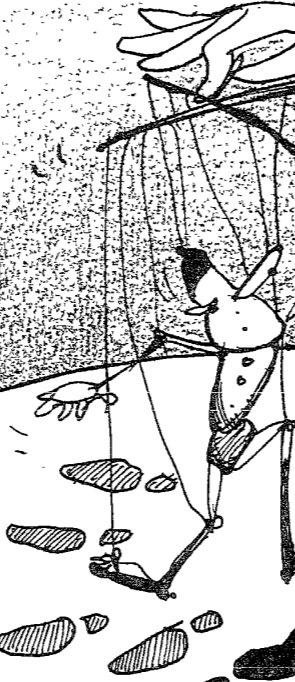
은 감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요컨대 그의 전위취향은 지나친 세세이념리즘을 편승한 일종의 신기취향이었었던 것이다.

또한 무제중의 경우 기존의 사실주의적인 전통연극행위를 부정하고 퍼포먼스(Performance)라는 포괄적인 입장에서 연극의 한계를 넓히고자하는 나름대로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981년의 반(反)그리고 통찰(통찰을 위한 막걸리살롱)에서 보여준 나름대로의 통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포즈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관객의 마음에 무엇이었고 그것이 속시원하게 주어지는 것이 없이 무관적이고 관능적인 차원의 표현경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만으로도 대략 짐작할 수 있듯이

## “한국 현대극에 있어서의 전위연극은 상업적인 저차원에서 탈피하여 진실표출하는 리얼리즘 추구해야.”

# 진 위 연 극



의 원조적인 그리움이 고독 혹은 생애에 대한 외경과 같은 것이었다. 예컨대 체호프의 빛나무동산을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느껴진 「찬란한 비극」의 풍경 같은 분위기가 고나 할까? 여기서도 연극은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움이나 고독 혹은 생애에 대한 외경들을 주제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아니라 평산 스타라이크의 후일담 속에서 이러한 주제를 결핵해낸 과정이 지극히 환상적이고 비현실이며 유미적인 수법으로 일관되어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자하는 것이다.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답게 보이던 사실상 지극히 불건강한 예술관의 발로로 불려왔던 것이다. (기성평론가들은 이연극에 대해서 사회문제적인 차원의 소재를 「거북살스럼지않고」 무리없이 감상해왔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도 눈에 띄는 것이 대항무대에서 공연되는 연극극이 있는데 이것들 역시 역사를 신비화한 채 주관적인 사실(眞性)만을 부각시키는 아방가르드의 고리타분한 무대였을 뿐이다.

이처럼 「허약한」 기성연극계의 알파한 지반을 뚫고 화려하게 등장한 이른바 전위극이란, 무조건적인 서구취향 속에 호도된 (혹은 빛나간) 민중취향의 사생아적인 본질을 지니고있는 것이다. (여기서 민중취향이란 함은 이튼바 전위적인 양식실험에서 예외없이 민중적인 형태들을 도입하면서 민족문화 운운하는 수식을 자처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결상화해 내는 건강한 예술행위 혹은 연극행위의 획득으로서의 진보적 리얼리즘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할 것이나 이것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단지 마지막으로 사물 혹은 상상을 그 총체적 의미의 관점에서 건강하고 진실하게 드러내주는 올바른 리얼리즘의 추구야말로 바로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전위(前衛)라는 수식에 걸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다소 역설적 명제를 덧붙여 보고자 한다.

강 영 희 <민중극연구회 회원>

# 우리 가슴의 빛깔같은 동국대학교

蔡 洙 永 <동문·시인>

달로는 달리 길이 없을 때  
눈빛에서도 달리 길이 없을 때  
정말로 달리 길이 없을 때, 길이에서  
만나는  
가슴, 가슴에서도 속깊게 맺은 인연  
동국대학교.

다가 왔을 때부터 열리기로 작정한  
무지개 보이는 곳을 향하노라면  
빛으로 살아 오는 찬란함에 고개숙이는  
그런  
그리움 때문에  
천 길 낭떠러지이거나  
깊이 모를 물속이거나  
갈 길 모르는 세상 흔들림에서도  
어지러운 때마다 불빛 바라  
마음 쉬는, 그렇게  
평안한 곳.

깊이에서 나오는 샘물, 그런 물맛 같기도  
하고  
서른 셋 하늘에서도 도리천에서 나오는  
푸름에 찬란한 하늘 같기도 하고  
늘 편히 계시는 부처님의  
넉넉한 안면에 미소같은 손 짓,  
아름함으로 찾아, 꿈꾸고  
나오는 곳.

설레는 마음으로 모여 앉아  
자랑처럼 새겨놓은 세월에서도  
언제나 만나기로 작정한 북소리가  
금빛같은 말로 다가오는  
사랑하고도 그리움 때문에 달리  
퍼보일 수 없어 서러운, 우리 가슴의  
빛깔같은 동국대학교.



## 메이리

지난 한해 를 마감한 것은 어이없는폭 발사되었다. 새벽녘의 가슴을 파고드는 기성연극의 열풍의 폭발은 1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를 초래했다. 그러나 유독가스와 그 후유증으로 실질적 피해자는 1천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니, 이번 폭발로 인한 전 국민의 공포심을 감안 한다면 피해자 아닌 사람이 없더라도 과인은 아닐 것이다. 격증하는 산업재해의 위기에 누구나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할 수 있는 재해조차도 막

지 못하는 데 있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다. 「강력한 안전 대책」이라고도 할수있는 가스 스텝과 주택가의 거리는 불과40여미터 인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古蹟과 주택가의 거리는 겨우 2미터를 건너는데, 이에 위한

이번 이벤트를 창출하고 폐 회되었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이번이랄것도 없다. 이 지년해 12월 초, 단 2분30초만에 음해 예산안과 21개 법안을 전격처리한 판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스피드시대에 살고있는

음도 그리 가벼울수 많은 것 같다. 다들 이해의 경제사정은 밝게 전망 된다. 차분한 마음과 노력으로 한을 한을 풀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하다. 그러나 政治·社會의 문제들을 대하면 막막함이 앞선다. 더구나 올해는 改憲과 選舉라는 대과제와 당면해 있다. 어느 때보다 민중적 의지와 슬기를 모아 이에 적극적으 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모두의 바램이라면 무엇보다도 「이번은 이번」으로 받아들여 지는 사회, 「상식」은 상식」으로서 통용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일 것이다. <勝>

# 謹 賀 新 年

## 東國大의 무궁한 發展을 眞心으로 祝願합니다.

<p>社 團 法 人 月 刊 商 物 價 情 資 料 發 行 人 會 長 金 澈 運</p>	<p>社 團 法 人 韓 國 物 價 協 會</p>	<p>고 려 화 학 주 식 회 사</p>	<p>서 울 미 라 마 관 광 주 식 회 사</p>	<p>동 남 갈 포 공 업 주 식 회 사</p>	<p>한 국 직 바 주 식 회 사</p>	<p>주 식 회 사 퍼 시 픽 콘 트 롤 즈</p>	<p>아 주 산 업 주 식 회 사</p>	<p>선 진 건 설 주 식 회 사</p>
--	--------------------------------	------------------------	------------------------------	----------------------------	------------------------	------------------------------	------------------------	------------------------